

Ⅶ. 호주

□ FY2009-10 : 2009년 7월 ~ 2010년 6월

□ 출처

- 2009-10 Budget overview, 2009. 5
- 2009-10 Budget Paper No.1 ~ No. 2, 2009. 5
- 2008-09 Final Budget Outcome, 2009. 9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10, 200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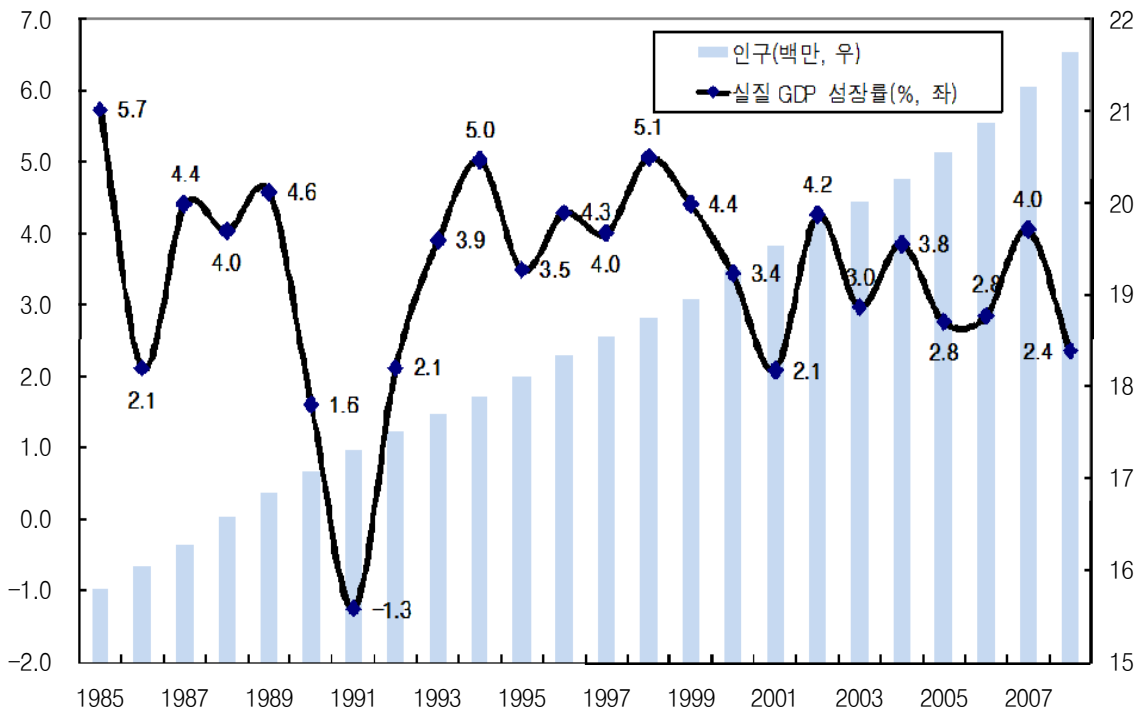
□ 환율 : 1호주달러 = 약 1,004.5원(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8년 경상GDP 8,312억달러(우리나라 0.6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8년 기준 49.1%(우리나라 107.0%)

□ 인구 : 2,151.4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경제 및 재정전망

- 호주경제는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세계경기와 시기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결과 다소 개선된 모습
 -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이 호주경제에 부담요인으로 남아 있어 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부양 조치는 필요한 상황
- 2009-10연도 예산수지는 577억호주달러(GDP 대비 -4.7%)의 예산적자가 예상되고 이후 적자수준은 점차 감소할 전망

◇ 예산기조: 2009-10 예산안은 “미래대비 투자를 통한 고용증진” 이라는 예산기조 아래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220억호주달러 규모의 국가 기간시설(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 일자리 지원 및 연금 개혁을 위한 지출 확대
- 예산흑자로의 전환을 위한 어려운 선택과 명백한 전략(Hard choices and a clear strategy) 마련

◇ 예산안 내용 (세입·세출 내역)

- 2009-10년도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906억호주달러로 전망
- 2009-10년도는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지출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4.2% 증가한 3,382억호주달러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위기 대응조치

- 2009-10예산안 이전에 총 4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수행하여 2009-10년도에 2.75%p, 2010-11년도에 1.5%p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와 2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
- 2009-10예산안의 주안점인 220억호주달러(GDP 대비 1.8%)규모의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로 2009-10년도의 경제성장률 0.75%p 제고 및 연간 1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

○ 재정건전화

- 경기회복 시점 이후부터 출구전략(Deficit exit strategy)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이 서서히 회복되어 2015-16년도에는 예산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고용 촉진·지원

- 호주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정리해고 및 실업이 높은 지역의 실직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직업교육훈련 공약(Jobs and Training Compact)”을 발표하여 2012-13년도까지 약 15억호주달러를 투입할 계획
- 현재까지 수행중인 총 5차례의 정부조치로 인해 최대 2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호주경제는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세계경기와 시기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결과 다소 개선된 모습
 - (성장)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였으나 예산안 발표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성장률을 상향 조정
 - 예산안에서는 경제성장률을 2009-10년도에 -0.5%, 2010-11년도에 2.25%로 전망
 - 반기 경제재정보고서(MYEFO)에서는 2009-10년도에 1.5%, 2010-11년도에 2.75%로 전망
 - (고용) 고용증가율은 2009년 하반기에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9-10년도 0.25%, 2010-11년도에 1.5%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또한 2009-10년도에 6.75%로 최고점에 달한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물가) 예산안 전망시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이 호주경제에 부담요인으로 남아 있어 국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부양 조치는 필요한 상황
 - 민간부문의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경기부양 조치를 서서히 줄여나갈 것임

<표 VII-1> 호주의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실질성장률	0.00	-0.50	1.50	2.25	2.75	4.50	4.00	4.50	4.00
고용증가율	-0.25	-1.50	0.25	1.50	1.50	2.50	2.25	2.50	2.00
실업률	6.00	8.25	6.75	8.50	6.50	7.50	6.00	6.50	5.75
소비자물가지수	1.75	1.75	2.25	1.50	2.25	2.00	2.25	2.50	2.25
경상성장률	5.75	-1.50	1.25	3.75	5.50	6.25	6.25	6.75	6.25

자료: 2009-10 Budget Overview, 2009. 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10, 2009. 11

나. 재정전망

- 호전된 경제전망에 힘입어 중기 예산수지 및 순채무는 예산안 발표시점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전망
 - (예산수지) 2009-10년도는 예산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577억호주달러(GDP 대비 -4.7%)의 예산적자가 예상되고 이후 적자수준은 점차 감소할 전망
 - 경기와 세입징수 간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림
 - (순채무) 2009-10년도 예산안 전망보다 85억호주달러 감소한 452억호주달러(GDP 대비 3.7%)로 예상되고 이후 2013-14년도에 GDP 대비 10% 수준까지 상승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19-20년도에 GDP 대비 2.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
 - 2009-10년도 순채무 감소는 주로 호주연방국채의 가치 하락에 기인
- 호주정부는 점차 긴축적 재정기조로 운영하여 재정적자규모 감소를 위한 노력
 - 경기부양 조치의 점진적인 철회, 경제회복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 증가, 지출증가율 억제 등으로 2009-10년도 GDP 대비 -4.7%의 예산수지 적자를 2012-13년도에 GDP 대비 -1.1%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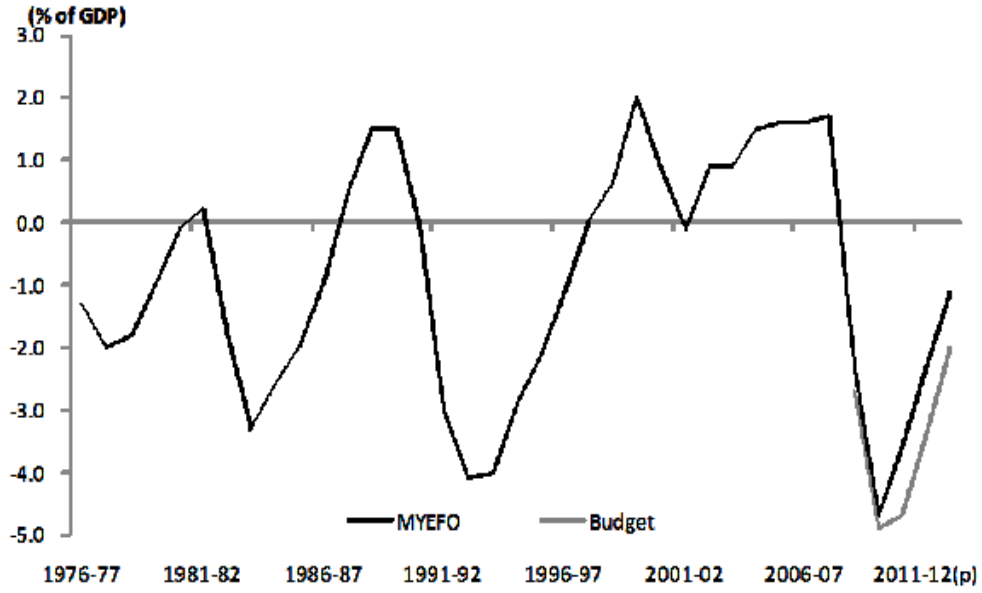
<표 VII-2> 호주 일반정부부문 예산총량 (Budget aggregates)

(단위: 십억호주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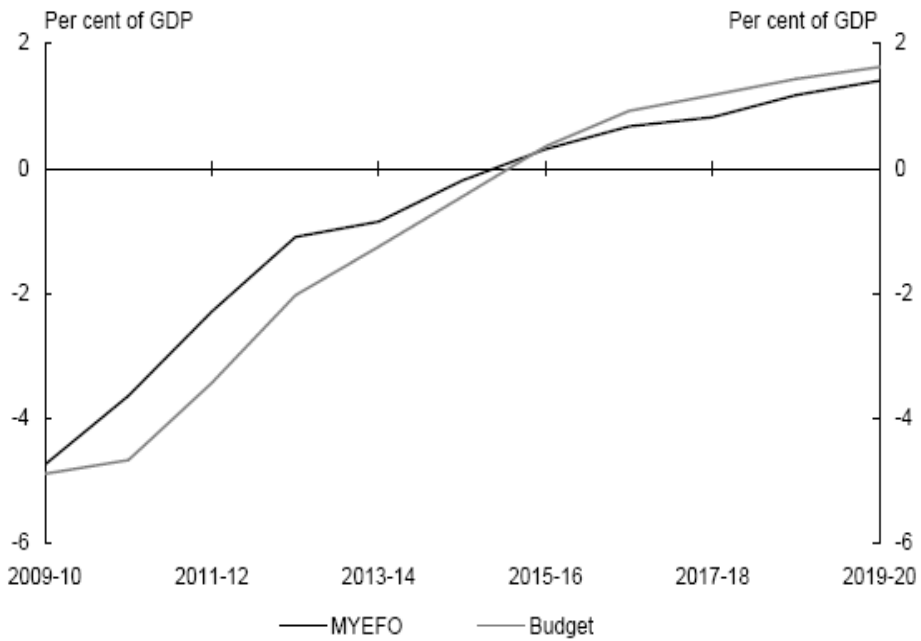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08-09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입(Revenue)	298.9	290.6	291.8	294.8	303.9	320.8	335.9	349.7	364.9
GDP 대비 비율	24.9	24.7	24.0	24.1	23.7	24.7	24.7	25.2	25.2
재정지출(Expenses)	324.6	338.2	340.2	344.5	345.0	356.4	358.5	375.0	378.1
GDP 대비 비율	27.0	28.7	28.0	28.2	26.9	27.4	26.3	27.0	26.1
순운영수지 (Net operating balance)	-25.6	-47.6	-48.3	-49.7	-41.1	-35.6	-22.6	-25.3	-13.2
순자본투자 (Net capital investment)	4.1	5.5	6.0	6.3	5.4	6.1	5.6	5.0	4.7
재정수지(Fiscal balance)	-29.7	-53.1	-54.4	-56.0	-46.5	-41.8	-28.2	-30.3	-18.0
GDP 대비 비율	-2.5	-4.5	-4.5	-4.6	-3.6	-3.2	-2.1	-2.2	-1.2
예산수지 ¹⁾ (Underlying cash balance)	-27.1	-57.6	-57.7	-57.1	-46.6	-44.5	-31.2	-28.2	-15.9
GDP 대비 비율	-2.3	-4.9	-4.7	-4.7	-3.6	-3.4	-2.3	-2.0	-1.1
순채무(Net debt)	-16.1	53.7	45.2	112.2	90.4	161.7	121.8	188.2	135.5
GDP 대비 비율	-1.3	4.6	3.7	9.2	7.0	12.4	8.9	13.6	9.4

주: 1)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자료: 2009-10 Budget Overview, 2009. 5
 Final Budget Outcome, 2009. 9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10, 200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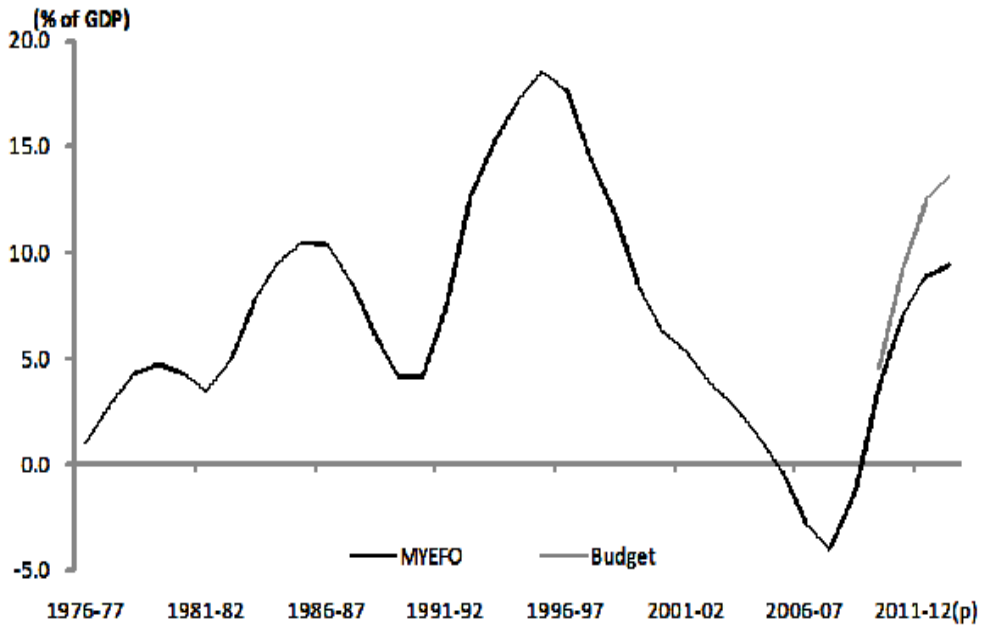
[그림 VII-1] 예산수지 추이 및 중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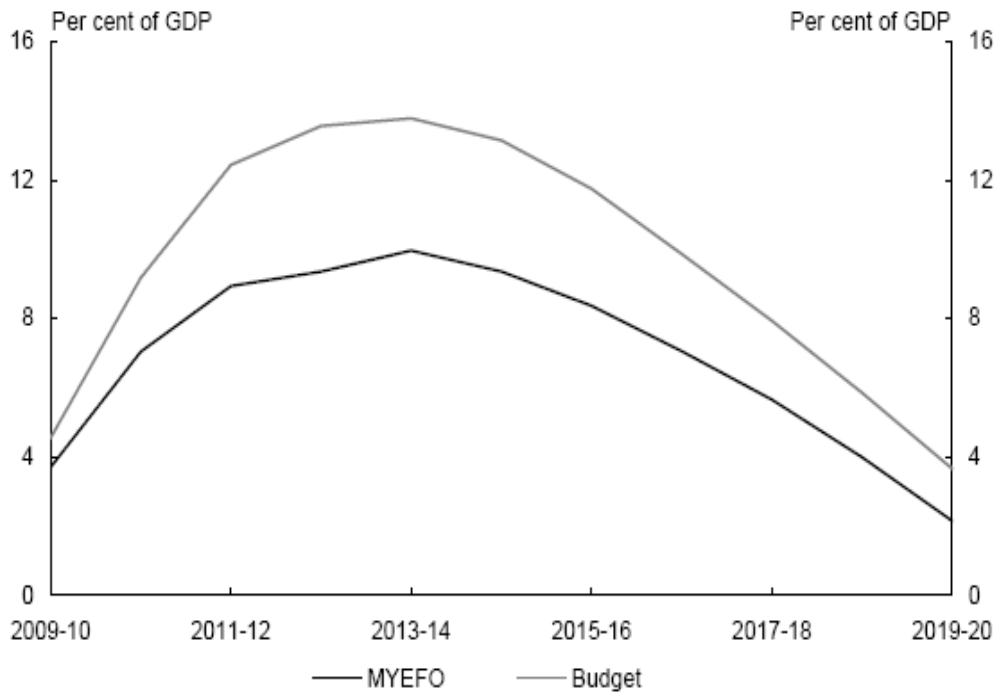
[그림 VII-2] 예산수지 장기전망



[그림 VII-3] 순채무 추이 및 중기전망



[그림 VII-4] 순채무 장기전망



- 호주 정부는 중기 재정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침체기와 경제 회복기로 나눈 2단계 재정전략을 계획
 - (중기 재정전략) ① 경제 순환기 전반에 걸친 예산 흑자 달성 ② 2007-08년도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률 유지 ③ 중기적(medium term)으로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증가
 - (1단계 재정전략)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기간에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
 - 성장둔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예산적자를 주도하는 세입과 지출의 변동을 감안
 - 기존의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과 예산 우선성 목표에 부합하는 지출로 경기진작을 수행
 - (2단계 재정전략) 경제가 정상화되고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정부는 예산흑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
 - 호전된 경제상황에 따라 자연적으로 세입여력이 회복되는 것을 감안하여 2007-08년도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률을 유지
 - 예산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평균 실질지출증가율을 2% 수준으로 제한

2. 예산기조

- 2009-10 예산안은 “미래 대비 투자를 통한 고용증진(Supporting Jobs Now by Investing in Our Future)”이라는 예산기조 아래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220억호주달러 규모의 국가 기간시설(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¹⁹⁾
 - 생산성 및 성장 제고를 위한 도로, 철도, 항만, 국가광역네트워크 구축 등에 투자
 - 청정에너지개발과 태양열 및 탄소포집 등 주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 세계적인 대학 및 병원을 위한 교육·보건 인프라에 투자
 - 일자리 지원 및 연금 개혁을 위한 지출 확대
 - 일자리 지원과 수요 제고를 위한 노력
 - 공정하고 지속적인 연금지급을 위한 연금개혁 수행
 -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유급 육아휴가 계획안 마련
 - 예산흑자로의 전환을 위한 어려운 선택과 명백한 전략(Hard choices and a clear strategy) 마련
 - 출구전략(deficit exit strategy)을 수행하여 2015-16년도에 흑자예산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19) 세부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에 84억호주달러 지출, 민간부문과 협의하여 국가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대 430억호주달러 투자(초기 정부투자금액은 47억호주달러), 청정에너지개발을 위해 36억호주달러 투자, 교육 인프라 및 보건·의료 인프라를 위해 각각 26억호주달러 및 32억호주달러를 지출할 예정임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내역

- 2009-10년도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906억호주달러로 전망
 - 조세수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 대비 3.9% 감소한 수준
 - 세계경기 악화는 1차적으로 자본이득세 및 법인세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수 감소
 - 세외수입은 주로 금융기관간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 및 예금보증계획(Guarantee Scheme for Large Deposits)에 따른 수수료수입과 호주중앙은행의 배당금 증가로 전년 대비 12.8% 증가

<표 VII-3> 일반정부부문 재정수입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재정수입(Total Revenue)	298.9	290.6	294.8	320.8	349.7
조세수입	278.6	267.7	276.0	301.9	331.0
세외수입	20.3	22.9	18.9	18.9	18.7
GDP 대비 비율	24.9	24.7	24.1	24.7	25.2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2009-10 Budget Paper No. 1, 2009. 5

Final Budget Outcome, 2009. 9

나. 세출내역

- 2009-10년도는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지출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4.2% 증가한 3,382억호주달러로 전망

<표 VII-4> 일반정부부문 기능별 재정지출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일반 공공서비스	17,196	17,755	18,739	19,598	20,280
국방	19,190	20,952	20,021	20,101	19,885
공공질서 및 안전	3,558	3,901	3,781	3,759	3,861
교육	22,601	35,222	32,087	28,630	29,878
보건	49,146	51,223	53,201	55,619	57,628
사회보장 및 복지	124,581	110,994	116,503	120,574	123,957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5,080	9,089	5,571	4,266	4,005
문화	3,107	3,099	3,000	2,938	2,944
에너지·연료	5,806	8,403	7,899	7,044	6,454
농림수산	2,723	3,407	2,791	2,852	2,915
광업, 건설·제조	1,911	1,681	1,962	1,947	1,906
교통·통신	6,941	5,482	5,637	6,686	6,826
경제(economic affairs)	6,507	8,183	7,994	7,854	7,450
기타 지출	56,221	58,822	65,344	74,518	87,00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324,569 (27.0)	338,213 (28.7)	344,528 (28.2)	356,388 (27.4)	374,990 (27.0)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2009-10 Budget Paper No. 1, 2009. 5

Final Budget Outcome, 2009. 9

- (교육) 교육분야 지출이 352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
 - 교육혁신계획(Building the Education Revolution initiative)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공교육협약(National Education Agreement)에 따른 국립 학교에 대한 지원금 증가,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증가 등에 기인

- (기타 지출) 주 및 준주에 대한 일반세입보조 증가와 공공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증가 등의 기타지출이 588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2009-10년도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지출이 91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78.9% 증가
 - 공공주택 건설투자를 포함하여 일회성 경기부양조치에 주로 기인

- (국방) 국방시설 운영자금 증가 등의 국방분야 지출이 210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9.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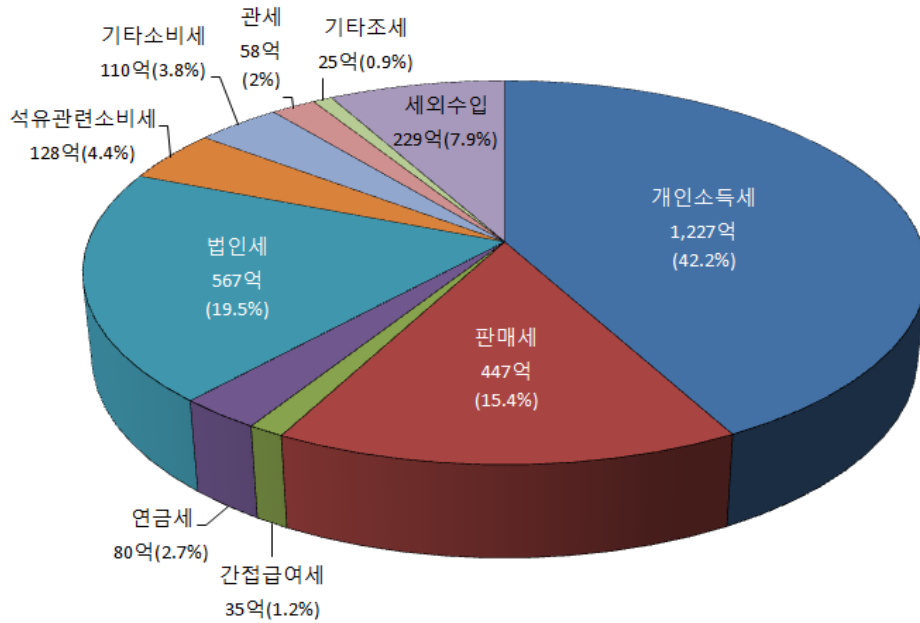
- (에너지·연료) 에너지·연료분야 지출이 84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4.7% 증가
 -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에너지효율주택정책, 청정에너지개발에 대한 재정 투자와 에너지효율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증가에 주로 기인

- (보건) 2009-10년도 보건분야 지출이 512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
 - 의료서비스 사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 및 준주에 대한 보건 관련 지급의 물가연동 효과 등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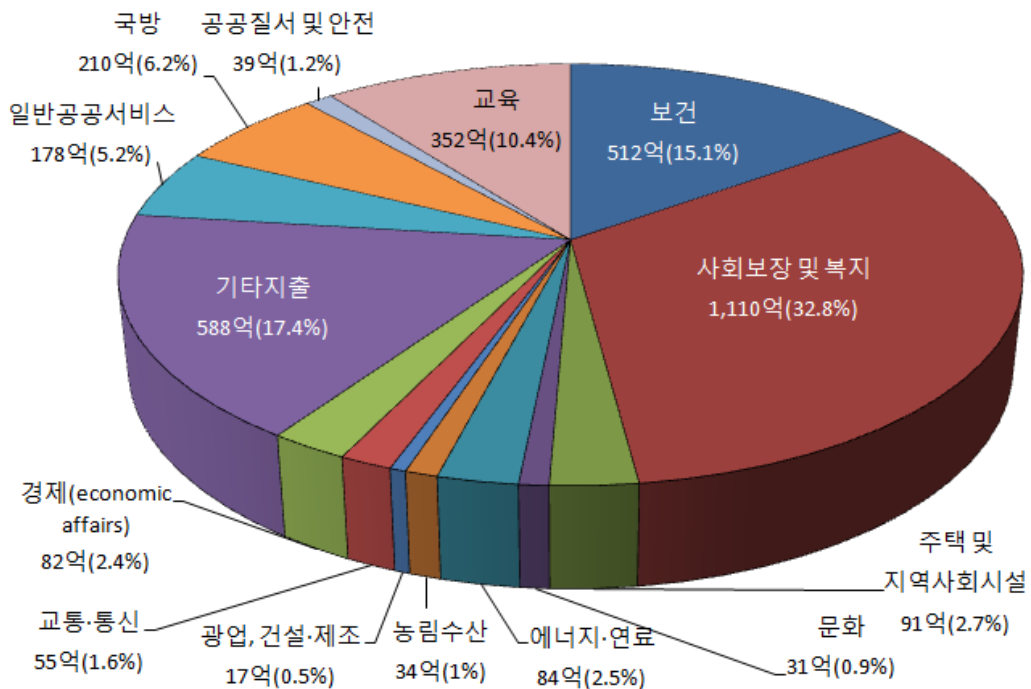
- (사회보장 및 복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 지출은 1,110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0.9% 감소
 - 2008-09년도에 수행된 경기부양조치로 가계 및 연금수급자들에게 일회성 지원금

(Bonus)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2009-10년도 동 분야 지출 배정액은 감소하나 향후 추계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VII-5] 2009-10 총재정수입 내역



[그림 VII-6] 2009-10 재정지출 자원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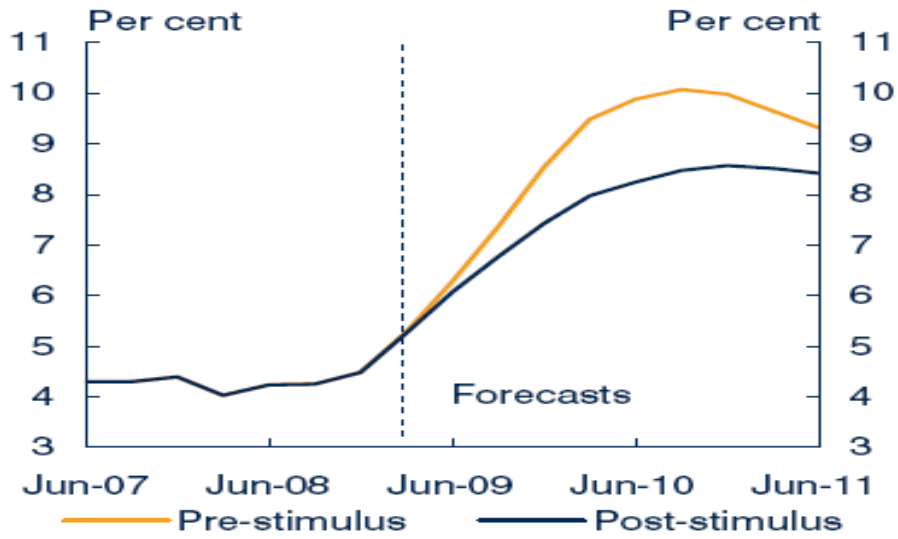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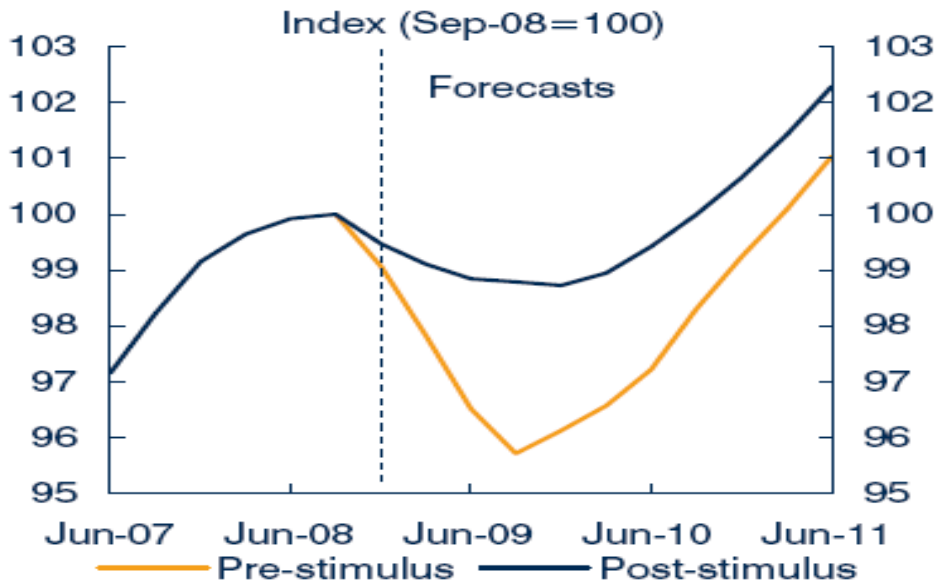
- (2009-10예산안 이전) 최악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총 4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수행하여 2009-10년도에 2.75%p, 2010-11년도에 1.5%p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와 2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
 - 104억호주달러(2008-09년도 명목GDP 대비 0.8%) 규모의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발표 (2008. 10. 14)
 - 중·저소득층 및 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지원
 - 152억호주달러(GDP 대비 1.2%) 규모의 「지역사회개혁정책(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reform package)」 발표 (2008. 11. 29)
 - 지역사회에 추가자금을 지원하여 보건, 교육, 공공주택건설 등에 투자
 - 장기적인 호주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상반기까지 지원
 - 「국가건설정책(National Building package)」 발표(2008. 12. 12)
 - 도로 및 철도, 교육 인프라 시설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호주경제 강화 도모
 - 420억호주달러(GDP 대비 3.3%) 규모의 「국가건설 및 일자리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 발표 (2009. 2. 3)
 - 3차 부양책의 확장정책으로 즉각적인 경기진작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2011년까지 지원

- (2009-10예산안) 금번 예산안의 주안점인 220억호주달러(GDP 대비 1.8%) 규모의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 발표
 - 동 조치로 2009-10년도의 경제성장률을 0.75%p 제고하고 연간 1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

[그림 VII-7] 실업률에 대한 정부조치 효과



[그림 VII-8]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조치 효과



나. 재정건전화

-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경기회복 시점 이후부터 출구전략(Deficit exit strategy) 추진
 -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 개선으로 인한 세입확충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
 -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도록 세제개편을 통해 추가 세입원을 확보
 -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여 19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
 - 연간 실질지출 증가율을 2% 수준으로 유지 : 호주정부는 예산안을 통하여 2011/12~2012/13년도 동안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출구전략을 수행
 - 이러한 출구전략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서서히 회복되어 2015-16년도에는 흑자재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다. 고용촉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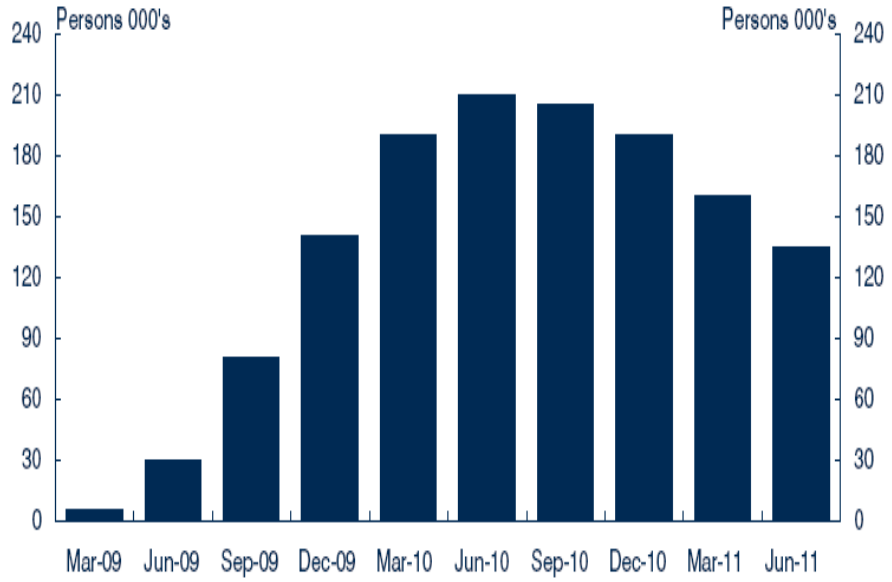
- 2009-10년도 실업률은 6.75%로, '01년(6.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호주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정리해고 및 실업이 높은 지역의 실직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직업교육훈련 공약(Jobs and Training Compact)”을 발표하여 2012-13년도까지 약 15억호주달러를 투입할 계획
 - 직업훈련지원금(New Training Supplement) 지급
 - 소득보조수급자를 대상으로 2주당 41.6호주달러의 일시적 직업훈련지원금을 통해 승인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승인된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구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교육훈련 지원금(Education Entry Payment)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현행 208호주달러에서

1,158호주달러로 추가지원

- 장기적으로 실업률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을 위한 협약(Compact with Young Australians)” 제정
 -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을 보장
 - 17세 이하의 청소년은 학교 및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직업을 갖게 함
 - 2015년까지 청소년들의 12년 교육과정 이수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업교육훈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경기침체로 실직된 근로자를 위한 “정리해고자 협약(Compact with Retrenched Workers)” 제정
 - 실직자들이 집중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 3억호주달러를 투입
 - 일시적으로 소득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을 확대하여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와 주요 은행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모기지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합의
- 경기침체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협약(Compact with Local Communities)” 제정
 - 6억 5,000만호주달러 규모의 고용펀드(Jobs Fund)를 조성하여 지역내 기간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술향상을 도모

□ 현재까지 수행중인 총 5차례의 정부조치로 최대 2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

[그림 VII-9] 정부조치로 지원받은 일자리 규모



[그림 VII-10] 직업교육훈련공약의 자원배분

